

노인 3명중 1명

자식과 따로 산다

60살이상 1천명조사

94. 9. 1

세 사람 중 한 사람꼴로 노인들은 자녀와 헤어져 살고 있고, 한달에 한번도 자녀와 만나지 않는 노인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. 또 노인 가운데 대부분이 노후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며, 현행 정년나이가 더 연장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등 일에 대한 욕구가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. 이런 사실은 서울시가 6~8월 시내 60살 이상 노인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나타났다.

현재 누구와 함께 살고 있는냐는 질문에 장남 부부 36.9%, 차남 이하 13.5%, 미혼자녀 12.6%, 딸·사위 5.0% 등 자녀와 동거하는 노인들이 68%였지만, 나머지 32%는 따로 떨어져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. 자식들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들의 별거 이유로 32.3%는 자신이 불편해서라고 말했고, 13.8%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라고 대답했다.

권오상 기자